



바다미술제-글로벌 부산이 그리는 예술의 밑 물결

가을, 부산의 곳곳이 예술로 물들다

부산의 푸른 바다는 다시 예술의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낙동강 하구와 산·강·바다가 만나는 다대포의 생태적 공간 속에서 펼쳐진 <2025 바다미술제>는 <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들>이라는 주제를 품었다.

키워드인 '밑 물결(Undercurrents)'은 바다 밑을 흐르는 암류이자,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현상이 맞닿는, 생태적·문화적 서사를 담아내는 예술적 순환을 의미한다. 이 주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보이지 않는 문화적 흐름을 되살아보게 한다.

김금화, 베르나 파나 두 감독의 기획 아래 17개국 38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다대포를 '예술적 생태 실험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대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물운대 해안산책로, 고우니 생태길, (구)다대소각장, (구)물운 커뮤스 등 부산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도시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장소들이 거대한 전시장으로 확장됐다. 비론 에롤 베르트(Viron Erol Vert)의 해초 같은 작품 조각, 마르코 바로티(Marco Barotti)의 사운드 설치 <표류하는 소리>, 자닌 안토니(Janine Antoni)의 영상 <터치>, 플라스틱 판타스틱(Plastique Fantastique)의 대형 설치 <플라미타> 등은 바다의 흐름과 인간의 감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 특히 조형설 작가의 <장기 초현실>은 (구)다대소각장의 역사적 흔적



김상돈_알 그리고 동대, 2025. /출처: 바다미술제 홈페이지



마르코 바로티_표류하는 소리, 2025. /출처: 바다미술제 홈페이지

을 품으며, 도시의 기억과 예술의 언어를 잇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다.

부산이 가진 두 개의 자산 - 바다미술제와 비엔날레.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서사

부산은 본질적으로 이미지의 도시다. 30주년을 맞아 경쟁영화제로 다시 출발한 부산국제영화제, 벡스코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각종 아트페어, 게임쇼 G-Star, 그리고 최근의 스트리밍 영화제까지, 부산의 성공은 언제나 시각과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왜, 시각예술의 또 다른 축인 바다미술제와 부산비엔날레는 그만큼의 세계적 파급력을 얻지 못했을까?

부산비엔날레는 그 역사부터 특별하다. 1981년 '부산청년비엔날레'로 시작해, 1987년의 '바다미술제', 1991년의 '국제아외조각심포지엄'을 거쳐,

1998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KCAF)로 통합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적 기획이 아닌, 지역 미술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험정신으로 시작된 유일한 비엔날레다. 이 정신은 오늘날 부산예술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다. 그러나 냉정히 보자면, 부산은 여전히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의 결핍 속에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을 구축했다면, 부산의 비엔날레는 여전히 시민의 힘에 더 의존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 이제는 그 자발성 위에 전략적 공공투자와 정책적 결단이 더해져야 한다.

없는 전통도 만들어가는 시대. 이미 있는 부산의 자산을 세계적 브랜드로

우려에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성장시킨 바다미술제와 비엔날레라는

훌륭한 자산이 이미 있다. 이런 대의 명분을 갖춘 자산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이 우리 유산을 콘텐츠화해 브랜드로 성장시킨 것처럼, 이제 부산은 바다를 예술과 문화 산업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K-Top의 성공이 단순한 장르의 승리가 아니라 콘텐츠의 확산과 시스템의 결합이었듯, K-Art 또한 그 흐름 위에 올라야 한다. 부산의 예술은 해외의 허울 좋은 천진 형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곳에서, 바다와 도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내는 감정의 언어와 정체성의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

K-컬처는 더 이상 남의 것을 빌려오는 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빌려 가는 원본을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부산의 바다미술

제와 비엔날레는 도시·자연·기술·커뮤니티를 하나로 엮어 새 전통을 발명할 가장 유력한 무대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신과 지속이다. 젊은 기획자들을 전면에 세우고, 로컬의 손으로 세계의 언어를 만들자. '없는 전통도 만들어 가는 시대, 부산은 그 교본이 될 자격이 있다.'

'다대포의 일몰이 최고의 예술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거대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삶 속의 예술, 시민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 있는 이러한 훌륭한 자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과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부산의 바다미술제와 비엔날레는 단지 지역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예술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예술은 더 이상 미술관의 벽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삶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전통의 생성 과정이다. 바다는 매일 밀려오고, 또 밀려간다. 그 물결 위에서 부산은 스스로의 서사와 전통을 발명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예술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리듬이다. 그리고 그 리듬의 중심에는, '없는 전통도 만들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부산의 예술가들이 있다.

글: 학술평론본과 김성현, 진수아

사)부산미술협회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입상자 발표

서예(한글) 김정희
문인화 이수진 대상 영예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며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주관하는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 공개심사가 8월 27일과 28일에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진행됐다. 작품 심사에는 이어 8월 29일 문장심사와 8월 30일 회화 심사를 거쳐, 서예(한글) 부문은 김정희의 판본 '뱃머리에서', 문인화 부문은 이수진의 '목죽'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 접수는 지난 6월 3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마감하여 한문, 한글, 서각을 포함한 서예부문 총 488점, 문인화 부문 총 314점이 출품됐다. 이중 서예 부문은 268점, 문인화 부문은 164점을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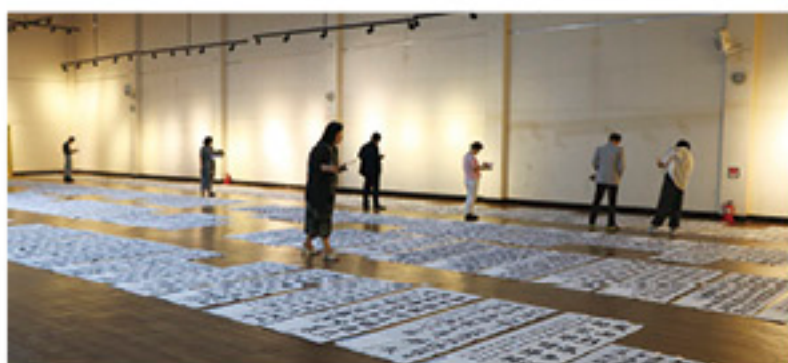
서예(한글)부문 대상 문인화부문 대상
작 김정희 '뱃머리에서' 작 이수진 '목죽', '여서'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서예부문 심사위원으로 외부 심사위원 1명(경기도지회)을 포함해 한문9명, 한글3명, 캘리그래피2명, 서각1명으로 총 15명을 위촉하였다. 총심사위원장은 김부경이 맡았으며,

한문심사위원장은 박순하, 한글심사위원장은 신말순이 위촉되었다.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외부 심사위원 1명(울산지회)을 포함해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조송자가 위촉되었다.

심사는 정해진 운영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점수로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입선작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되었다. 전 과정은 실시간 녹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며 공개 심사의 원칙으로 진행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했다.

부산미술대전 입상작 전시는 부산시청 2층 전시실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11월 24일(월)부터 12월 13일(토)까지 열리며, 서예 부문의 입상작 전시는 12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문인화 부문은 12월 16일(화)부터 12월 20일(토)까지 부산문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열린 전국공로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현장.

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심사결과
■서예부문 △대상 김정희 <한문> △우수상 이인상, 이영재 △특별상 권승열, 정복자 △특선 강산규, 김경희, 김영효, 김용욱, 김정우, 김창호, 박경욱, 박미경, 박외숙, 박재수, 신종호, 안현미, 이경훈, 이운교, 이윤환, 이재욱, 정원택, 정유경, 조은자, 지민경, 차숙이, 최태연 <한글> △특선 김성원, 김홍섭, 류미영, 백영숙,

양가진, 장혁진 <서각> △특선 윤정희, 장용남, <캘리그래피> △특선 김옥예, 이송은, 황선영

■문인화 부문 △대상 이수진 △우수상 이미영 △특별상 오지원 △특선 강대순, 김동욱, 김병기, 박재형, 변경숙, 손정미, 유충호, 이명애, 이명자, 이운교, 임향연, 임현옥, 전순남, 정미향, 정민철, 정승환, 진소연, 하정남, 황경, 황미경, 전장렬,

명사칼럼



허동운

부산지연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BFAA 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장

지난해 10월 '21세기 동시대 미술 in 부산' 전을 (사)부산건축주최로 동구문화플랫폼에서 열었다. 같은 제목의 '21세기 동시대 미술 in 부산'을 주제로 한 인문학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인문학아카데미로만 끝내기에는 아쉽기도 했고, 마침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상지건축의 행사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시기획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독일호놀트에서 미학과 사회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종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가 강의하고 강의에 참여했던 지역 작가 6인과 함께한 전시였다. 각자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여러 형태를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왜 동시대 미술인가?

19세기 미술이 재현의 장이었다면 오늘의 미술은 질문과 충돌의 실험실에 가깝다. 지

금의 예술은 무엇을 보이게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이는 것으로 할 것인가를 묻는다. 즉, 대상의 문제에서 인식 조건의 문제로 넘어온 것이다.

마르셀 뒤샹이 소변기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은 순간부터 예술은 사유의 전환을 요구하는 장르가 되었다. 왜 여기에 이것을 두었을까? 묻는 순간,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게 되도록 요청하는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시대 미술은 곧 철학적 실험이 된다. 이제 이것은 예술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술이라 부를 때 인간은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가라는 메타적 질문을 던진다.

인문학이 인간의 삶을 질문한다면 미술은 그 질문을 감각적 충격으로 번역해 낸다. 이것이 바로 동시대 미술이 지닌 인문학적 힘이다.

예를 들어, 책에서 읽은 '타자의 개념이 관념적이라면 난민 캠프의 참상을 통째로 겹쳐 한복판에 세워 놓은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타자의 체온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의 형태로 다가온다. 결국,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술이 아니라 왜 지금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는가라는 맥락을 읽고 그 감각을 갖는 일이다. 이는 익숙한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경험이다.

AI시대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

인문학으로 보는 동시대 미술

2015년 상지인문학아카데미를 시작했을 때 건축사무소에서 왜 인문학아카데미를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필자는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더 인문 정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문학은 인간의 근원, 관계, 그리고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와 자기표현 능력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다움이 필자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건축은 인간의 삶과 정신이 공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동시대에 대한 고민 없이, 공간을 사용할 인간에 대한 애정 없이 지어진 건축물은 어쩌면 하나의 땅어리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어디, 건축만 그렇겠나. 하물며, AI 시대에 가장 핵심은 아아려나하게도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학으로 그림 읽기, 도슨트 과정

인문학아카데미가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시대적 고민을 함께해 왔다. 그와 더불어 8년간 진행해 온 또 하나의 주제는 '서양미술과 미학의 창'이었다. 이는 2년 전에 '21세기 동시대 미술 in 부산'이라는 주제로 이어져 상지건축 창립 50주년 기념전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올해, 21세기 동시대 미술은 부산미술협회와 함께 '미학으로 그림 읽기'라는 도슨트 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 선정, 연출한다면 도슨트는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를 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도슨트는 'docent'라는 라틴어이다. 대학의 전임 교수가 아닌 강사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1987년부터 "전문 지식이 있는 가이드로 전시의 해설을 담당한다"고 정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다. 현재의 도슨트는 전시에 투입될 때마다 몇 차례 교육을 통해 투입되기 전에 그 전시에 관한 지식은 학습하지만 미술사 전반에 대한 지식은 습득할 기회가 없어 비연속적이고 일회성이 되기 쉽다. 그래서 많은 도슨트들은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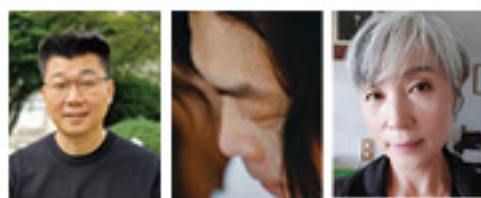
부산미술의 성장과 발전

지역 미술의 성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작가와 일대일 매칭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대를 알아내는 힘이 있다면 작품은 더욱 깊이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시작한 '미학으로 그림 읽기' 도슨트 과정에서는 '도상학과 도상해석학'부터 동시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미학, 사회철학, 역사 등을 아우르는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에서는 도슨트 과정 수강생들이 전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작은 시작이 동시대 현대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부산 지역 미술이 세계 미술로 가는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 제24회 부산예술상 수상자 발표

젊은 예술가상 김종택, 청년작가 특별상

정안용, 공로상 조영숙 작가



김종택 작가 정안용 작가 조영숙 작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4회 부산예술상 시상식이 10월 28일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제24회 부산예술상 예술문화공로상에는 조영숙 작가가 선정되었다. 제18회 부산젊은예술가상은 김종택 작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청년작가 특별상은 정안용 작가에게 돌아갔다.

부산예술상은 예술문화 발전과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예술 진흥을 이끌어갈 예술인을 찾아 매년 시상하여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예술문화공로상의 조영숙 작가는 자연에 근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정체성에 다가가고자 함축적 시어가 지닌 경쾌함과 더불어, 자연으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고 있다. 조 작가는 2015년 마안마 양곤 레지던시 활동 이후, 내재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풍경'으로 주제를 확장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대상의 교육 현장에서 문화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부산예술대학교의 초대 교장 취임하여 미술, 음악, 무용, 재봉, 영어, 미술사 등 예술 과목을 개설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유대를 함께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제18회 부산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한 김종택 작가는 인간과 자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시각적으로 탐구해 온 작가이다. 올해 열린 개인전 '기억의 창'에서는 공간적 은유 속에 기억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흔적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회화적으로 형상화 하며 창의적 역량을 선보였다.

그는 개인 창작활동에 머물지 않고, 부산독립미술가협회 회장으로써 미술인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적 맥락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김 작가는 부산미술협회 청년위원장으로서는 청년작가전 및 BFAA 아트페어 청년작가 특별전을 총괄 기획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청년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헌신하고 있다.

청년작가 특별상을 수상한 정안용 작가는 2007년부터 연가리는 무형의 소재를 연구하며, 최근 사라져가는 도시의 기억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회화, 조각, 영상·설치로 기록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사회적 현실을 감각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며, 시각적 감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지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산의 일상과 공동체의 현실을 비추고 사회적 담론을 생성한다.

2025 부산미술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사)부산미술협회가 2025년도 제4차 이사회가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재직 이사회 임원 65명 중 46명이 참석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보고 사항으로는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서예, 문인화 결과보고 △제63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전' 진행보고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한국화의 9개 분과 1차 및 2차 공모일정 △2026년 고문단, 이사장단, 감사, 분과회장단, 연석회의 결과보고 △2026년 부산갤러리, 금련산갤러리, 푸평아트스페이스 대관 진행보고 △2025 당대 한·중 서화교류전·동시대 공자아카데미 결과보고 등이 다뤄졌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_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운영규정 신설 ▲안건2_사)부산미술협회 연회비 인상 ▲안건3_세계적인 미술관(종파두 센터 부산) 건립 서명 ▲안건4_산입회의 인준 및 전과, 전입, 탈퇴, 복권, 제명회원 심의 의결했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대형정신 공간 확보에 대한 진행내용, 80세이상자 산입회원 입회 조건완화 등이 논의되었다.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전 개최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고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 제63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전' 전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청 1·2·3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파동을 주제로, 부산 지역 작가 34명과 중국·일본의 작가 25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다양성과 의미의 확장을 내포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회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집결해 관람객들에게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름 통해 국제 미술계와의 협력의 장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부산미술의 실험성과 예술적 에너지를 함께 나누었다.

이작가를33주목한다

대담/글 : 김종원 (미술감독)

✓ 한국화 이영



“산을 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영 작가는 대담의 첫마디부터 이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림을 말로 풀어내려는 세속의 습관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예술의 본질을 향한 간결한 선언처럼 들렸다.

“그림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된다면 그건 이미 소설이죠.”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붓과 호흡을 맞추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심(無心)의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예술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리듬”이라며, “작가의 글이 짹짹하면 그것은 관람자에게 일종의 강요가 된다”고 덧붙혔다. 그래서 이번 대담은 의도적으로 여백이 많고, 중간중간 그의 호흡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남겨두었다.

1. 선(線)의 리듬, 기(氣)의 흐름

이영의 세계는 ‘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선의 리듬이야말로 인간 내면의 기운이 형상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붓을 들면, 그 안에는 중력과 척력, 밀고 당기고 쥘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힘이지요. 그 힘이 빠진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 선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호흡의 흔적이자 기(氣)의 증명이다.

이영은 “동양화의 핵심은 공간의 공감각(共感覺)”이라 말한다.

“공간을 그린다든 건 단순히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를 불어넣는 일이에요. 기가 없으면 아무리 그려도 공간은 평면이에요.”

그는 자신이 체득한 ‘기’를 공감능력이라고 정의한다.

“향기를 본다든지, 소리를 느낀다든지, 그것이 다 공감각이에요. 그걸 깨우치면 그림 속의 공간이 홀로그램처럼 살아 움직이죠.”

그의 설명은 마치 수행자의 호흡처럼 느려졌고, 말 대신 긴 정적이 흘렀다.

2.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

그림은 마음으로 그린다. 그는 수십 년 제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그림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려요. 마음이 없으면 손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의 작업은 단순한 기법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삼재자망(心齋坐忘)은 감정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물아조물(物我調微)은 감각을 조율하는 단계예요. 물아는 쉽지 않아요. 마음이 물질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까요.”

이영은 자신의 그림을 ‘기운을 따라가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몸이 따라가면 그림은 저절로 완성돼요.”

이 말에는 동양 회화의 근본정신이 스며 있다.

그에게 예술은 표현이 아니라 수행이다. 붓은 도구가 아니라 ‘호흡의 연장’이며, 그림은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3. 시드는 연꽃, 그리고 여백의 시간

최근 그는 시드는 연꽃을 그리고 있다.

“연꽃이 피는 순간보다 시드는 순간이 더 좋아요. 형태가 없고, 초점이 없으니까. 대상이 사라질수록 공간이 드러나요.”

이 말은 마치 불교적 무상(無常)의 화두처럼 들렸다.

그는 수백 장의 스케치를 이어가며 대상을 바라보고 리듬만을 남겼다.

“그러려 하면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그려집니다. 대상이 아니라 리듬을 그리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수월함은 단순한 노력함이 아니라,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한 경지에 가깝다.

그는 아이서 말했다.

“내가 해보니까 10년, 20년 안 들어가던 것도 이제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강 그림자 _70×140cm.



반구대 물향기 _70×140cm.

건 없어요. 술 마시며 떠들 시간에 난 스케치한 장을 더 그림니다.”

4. 기(氣)를 보는 사람

이영은 말한다.

“기가 보여야 합니다. 눈으로 색을 보는 게 아니라, 기운을 봐야 해요. 그게 보여야 동양화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는 공간을 시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공간은 그에게 ‘기운의 장(場)’이며, 붓을 잡는다는 것은 그 장에 접속하는 일이다.

그는 종종 물리학 책을 본다.

“차원이 뭐냐, 중력이 뭐냐, 이런 걸 물리학에서 풀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돼요. 동양의 기(氣)와 서양의 물리학은 결국 같은 장리로 향해요.”

이 대목에서 그의 철학은 예술을 넘어 우주

론으로 확장된다. 그는 이미 예술가이자 수행자, 동사에 사유하는 철학자이다.

5. 늦은 꿈, 그리고 유파(流派)의 기풍

이영은 말했다.

“나는 체험을 체질로 만들고 싶어요.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기질이 되고, 수행이 되면 기풍이 됩니다.”

그는 유파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풍을 세우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60,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용이 형식으로 바뀝니다. 인생도,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의 말처럼, 지금 이영의 붓은 ‘내용의 시대’를 향해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덧붙혔다.

“내가 뭘 그리려 하는 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편하고 단순해요.”

6. 산을 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영의 대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산을 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는 설명 대신 여백으로 말하고, 언어 대신 침묵으로 그린다.

그의 그림은 대상의 묘사가 아니라 존재의 호흡이며, 그 호흡 속에 관람자는 스스로의 기운을 바취하게 된다.

• 2010 송해수 미술상

• 개인전

2023 다솜갤러리(시민공원)

2021 화인갤러리(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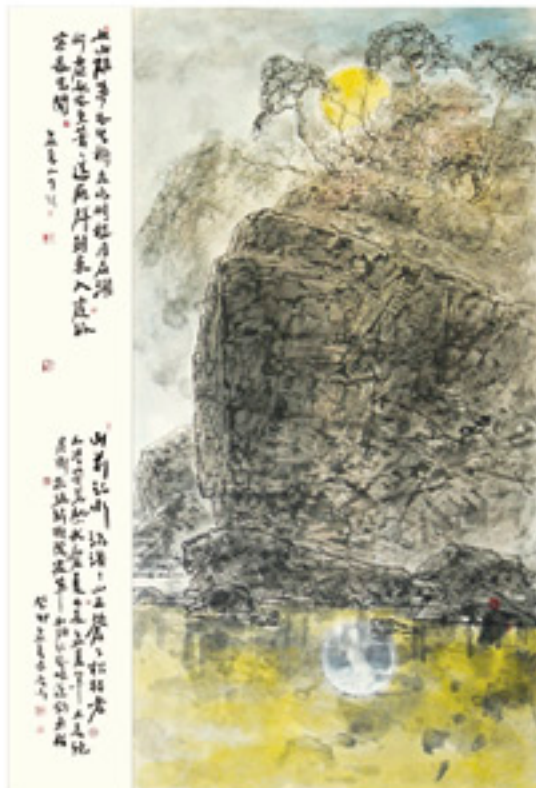
2019 다솜갤러리(시민공원)

2017 도회전(시민공원 도자공방)

• 부산대학교 · 신라대학교 · 동의대학교 · 울산대학교 · 경성대학교 · 고신대학교 · 부산예술대학

• 송해수미술상, 비엔날레위원회, 부산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 역임

• (현) 한국미술 · 부산미술협회



강아몽월 _70×140cm.



새벽강 _70×140cm.



아래정 _70×140cm.

원로작가 서재만 회고전 열어

자연의 근원에서 출발해
추상의 길 위에 선
예술 인생의 궤적과 기억



원로작가 서재만

근현대 추상미술의 길을 걸어온 서재만 화백의 회고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아들 서유익씨가 주최하고 비영리단체 S문화예술기획의 후원으로 열렸다. 아들 계기로 7년간 치매로 투병하며 작업이 불가능해진 서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총 60여 점의 평면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199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서 화백은 1955년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경남여고, 부산여고, 전주여고 등에서 교편을 잡으며 교육자의 삶을 병행했다. 1973년에는 부



조류+인간=대화 _291x138cm(300호변형), oil on canvas, 2009.

산의 실험적인 동인 그룹 '해'에 합류해 강선보, 김홍석, 허황, 심명보, 이정수 등과 함께 부산 추상미술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후 부산창작미술협회 회장,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부산미술협회 원로 작가로서 부산화단의 토대를 다졌다.

서 화백의 작업은 늘 자연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빛과 물결, 산세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유기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며 추상의 언어로 풀어낸다. 1970년대 작품 〈빛의 뒤쪽〉은 무형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담아

낸 초기 실험이었고, '파랑시리즈'와 같은 전면 추상에서는 파도의 궤적과 물결의 운동성을 화면 전체에 확산시켰다. 작품 속 색의 명암과 세밀한 곡선은 수심과 파도의 결을 드러내며, 추상이 어떻게 생명의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후기 연작 〈물했습니다〉에서처럼, 기하학적 구조 속 생성되는 형상, 반복과 절제, 점묘와 양각의 병치, 형식적 변주를 거듭하며, 자연을 마주하고 느낀 감각과 울림을 화면에 각인하는 여정이 되었다.

이러한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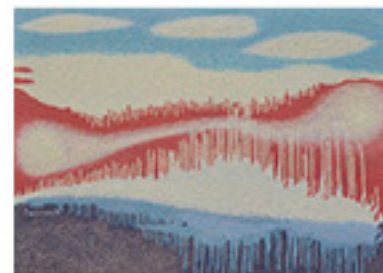
화백은 1987년 브라질 대평요 국제전에서 최우수 국제작가로 선정되며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한국예총 부산지부 감사, 부산문화회 운영위원, 한국현대미술제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미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회고전은 자연과 인간,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지금도 고요하게 숨 쉬고 있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선후배 작가와 관람객이 창작의 열정 및 삶의 궤적을 되새기도록 이끌었다. 이처럼 실험과 탐구, 상상과 표현으로 쌓아온 그의 예술적 궤적은 오늘날 부산 추상미술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신만의 색을 담은 작가의 독창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마치 송고한 정신의 수도승처럼 추상의 언어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해온 서재만 화백의 예술세계와 열정은 지금도 파도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밀려오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우리 곁에서 울리고 있다.



날으는 새 _116.8x91cm(50호), oil on canvas, 2009.



물했습니다 _162.2x130.3cm, oil on canvas, 2000.



반옹 _53x45.5cm, oil on canvas, 2006.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를 사유하다

장자와 니체의 사상을 담아
존재와 소멸에 대한
독특한 미학 드러내



서형화가 서상철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최상철 작가의 제8회 개인전 '호접몽'이 열렸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과거 대학 시절 구상했던 아이디어 스케치와 미원의 에ски스를 토대로 완성한 입체·설치작품 12점, 평면작품 29점

을 선보였다.

'호접몽'은 장자가 꿈 나비 꿈을 따온 것으로,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인간 존재의 조건을 상징한다. 최 작가는 이 개념을 불교의 '책즉시공 공즉시색'과 나란히 놓으며, "존재의 소멸 이후에도 인간의 인지 영역을 넘어선 형태로 존재는 지속된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골 모형, 인체 피규어와 같이 각종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활용해 머릿속의 이미지를 구체화 하며 존재와 소멸의 경계를 시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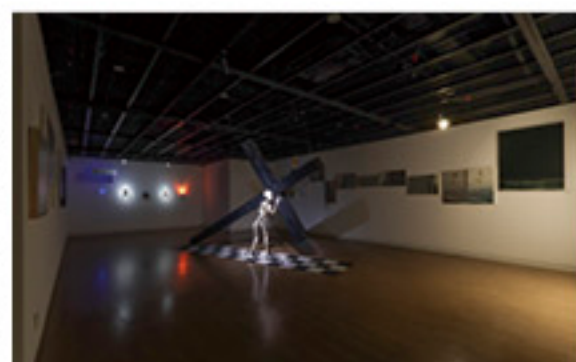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설치 작업은 공간과 조명,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감과 우연성이 작품의 일부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작가조차 예측하지 못한 최종적 긴장감을 발산했다.

대표 작품 〈바벨탑-부르넬오마주〉는 성경 속 바벨탑과 부르넬의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를 모티브로 삼아, 인간을 유한성에 가두려는 신과 맞서 싸우려는 젊은 예술가로서의 저항을 담았다.

〈니체의 광대〉는 니체의 영원회귀설과 초인사상 등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인간을 초인과 동물 사이의 존재로 규정한 니체의 사유를 자신의 경험과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설치 작품으로 풀어냈다. 이처럼 그의 작

업은 끊임없는 철학적 사유와 조형적 실험, 그리고 불완전한 소용을 향한 예술가의 집념 위에 세워져 있다.

최 작가는 "작품이란, 완벽하게 주관적이면서도 다수와의 소통이라는 완벽한 객관성을 지향한다"라고 정의하며, "나는 내 작품을 접하는 관람객을 둘로 나누어 본다. 하나는 나와 다른 길을 가면서 나를 모르고 작품을 보는 사람들, 또 하나는 나와 동행하면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 작품을 보는 무작위의 관



To Golgotha _51x3m이내 설치, object, 혼합재료, 2025.

람객들이 내 작품을 이해하기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들이 내 작품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리고 기꺼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묵향에 흐르는 역사, 예술로 깨어나다

'예술로 역사에 노닐다'展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예의 확장된 지평제시



서해가 안도영

역사와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예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있는 서예가 안도영의 제5회 개인전이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회갑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개인전은 앞서 부산시청 전시실

에서 열렸으며, 서울을 거쳐 고향 창원까지 이어진다. 문곡 안도영 유예회사(遊藝遺史)-예술에 놓고 역사에 노닐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사를 서예로 재해석한 60여 점의 대규모 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예의 확장된 지평을 보여준다.

안 작가는 지난 개인전에서 이미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해 온 바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조선의 역사와 정신을 여덟 글자 한 구절로 압축하여, 광개토대왕비체와 판본체로 대형 전자에 담아낸다. 또한, 세종대왕의



지리산 화대종주 _70x135cm, 화선지에 먹, 한국화물감, 2025.

훈민정음 서문, 성삼문의 '단심가',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即生 必生則死',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 송상헌 장군의 '전사 이 가도난 戰死易假道難', 정조대왕의 '불취무귀 不醉無歸' 등 조선 위인들의 글귀를 여러 서체로 구현하였다. 더불어 자작 시조를 한글과 문인화로 풀어낸 작품, 한문서예와 5서체를 활용한 창작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2019년 지리산 화대종주를 기록한 작업 방식으로, 산행의 18시간 여정을 서예적 기운과 회화적 감각으로 형상화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웅장한 기상과 그 품에 안긴 인간과 예술의 긴밀한 관계를 전한다.

전통 서예의 탄탄한 획을 토대로 시원하게 써내려가는 붓의 울동과 작가의 생각과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서예 작업에 매료된 그는 "기운생동한 선질 속에 먹빛의 농담과 여백의 미감 함께 살아있어야 서예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서예는 작가의 사상과 정신이 작품에 스며들 때 비로소 예술로 승화된다"며, 문자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동시대적 의미를 강조했다.

작가는 "태어난 고향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묵향에 마음을 담는 것은 더욱 특별하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는 구한말에서 근현대사까지를 여덟 글자 한 구절로 정리하여 서예작품으로 남기고자 하는 포부도 덧붙였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4

「부산기독교미술협회」 Since 2000

신앙으로 그리는 예술, 예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



2025 제24회 부산기독교미술협회 정기전 단체사진.



부산기독교미술협회 창립전도록.

부산 기독교미술협회는 신앙을 예술로 증언하고,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미술단체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역 미술계에 독특한 자취를 남겨왔다.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미술

인들이 모여 공동된 신앙의 바탕 위에,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예술의 현장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

부산기독교미술협회는 2000년 11월 4일, 부산성서화운동본부의 성서화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당시 부산홀리클럽이 주최가 되어 부산예술고등학교 전시실 '일신관에서' 첫 창립전을 개최하였고, 초대회장은 조각가 장상만, 전시운영위원장은 여운부가 맡았다.

창립 당시 50명의 회원들과 출발하며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사진 등 폭넓은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아들은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작업하는 세례교인이며, 미술을 전공하였거나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부산미술협회 회원 자격을 참조하여 회원을 구성하고 있다. 예술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뜻을 품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독교미술협회는 현재 경남 지역의 작가들까지 아우르며 신앙과 예술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부산기독교미술협회는 창립 이래 매년 1회씩 정기회원전을 개최하여 올해로 제24회 정기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정기전과 더불어 기획전을 통해 회원 각자가 받은 예술적 재능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회원들 간의 활동으로는 벽화그리기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연구 사업으로 기독교미술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연중 2회에 걸쳐 작가론을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작품세계를 탐방하여 기독교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협회는 이양우 회장, 홍성규·류명렬 부회장, 임이정 총무, 전신원 서기, 김혜진 재무, 진영설·임하은 감사로 이루어진 임원진을 비롯하여 강희란, 고미숙, 고인숙, 권영채, 김문주, 김미선, 김신하, 김인위, 김외칠, 도연옥, 박경철, 박선길, 박옥남, 박인환, 박형만, 박혜경, 박희자, 성인형, 성경경, 송미숙, 안화윤, 여운부, 위영옥, 이경숙, 이고은,



2025 제24회 정기전 전시회사진.

이마애, 이석순, 이성자, 이은주, 장인영, 전화자, 정수안, 정용근, 장인우, 조운복, 조현숙, 주민경, 최영이, 최학보, 한미숙 총 49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부산기독교미술협회는 "우리의 활동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작품활동 목적이 뚜렷하다"라며, "이러한 활동들은 회원들의 작은 후원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기에, 소수의 기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는 작은 후원금과 연회비, 출판료 등으로 화를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기독교인 중에 미술을 전공하는 다음 세대를 발굴하는데 힘쓰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성작가들 중에도 기독교미술협회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홍보하여 우리를 알릴 계획이다. 일반적인 미술단체와는 달리 본 협회는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쳐 나가는 차별화된 단체이므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활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양우 회장은 "지역에는 많은 미술단체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기독교미술협회는 시민들에게 신앙과 예술이라는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소개하게 되고 시민들 또한 다층적인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본 협회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하며, "작품을 발표하고 기독교미술작품이 판매되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작품이 걸리게 되며 기독교작가들의 영성이 녹아 있는 작품을 소장하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한다. 판매를 통해 작가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며 작가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오늘날 부산에는 수많은 미술단체가 존재하고, 신앙과 예술을 함께 기반으로 한 예술단체는 흔치 않다. 부산기독교미술협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예술계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이다. 예술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통해 예술을 확장해 나가는 이들의 행보는 오늘의 신앙심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향해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서른 번째 이야기



김성현
학술평론과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술계인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다. 성숙한다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1859~1941) -



좌로부터) Tanc, without title 시리즈들, acrylic on canvas, 오른쪽은 탱크와 지드래곤.

시대정신 읽기 - being이 아닌 becoming의 세계관으로 4

“고정된 예술이 아닌, ‘되는 과정’ 그 자체로 살아가라.” - 거리의 리듬, 생성의 미학! 탱크(Tanc)의 그래피티

21세기 미술은 더 이상 미술관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거리의 소음, 도시의 공기, 즉흥의 리듬 속에서도 예술은 숨을 쉰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작가가 바로 프랑스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탱크(Tanc, Tancrède Perrot, 1979~)’다. 그는 거리에서 성장해서 미술관으로 들어온 예술가이자, 정지된 존재(being)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는 존재(becoming)를 상징한다.

필자가 탱크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아트부산’ 아트페어였다. 당시 그의 작품은 거리의 에너지를 머금은 채, 질서와 혼돈 사이를 오가는 자유로운 리듬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수줍게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을 발견한 나는 그날 주저 없이 여러 점을 구입했고, 이듬해 제자들과 함께 파리의 작업실을 찾아가 예술의 본질을 나누었다. 그는 이후, 서울의 조은 갤러리에도 캐스팅되었고, 그런 인연들로 탱크와 나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예술적 대화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부산을 자주 찾곤 하는데, 몇 해 전 하소연을 하며 필자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았다. “내가 갤러리들에서 초대를 받으니까, 동료들이 나를 ‘그래피티를 버린 속물’이라 부르네요.” 그 말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종이에 ‘道常無名’이라고 크게 적은 후 이렇게 말했다. “탱크, 너는 큰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담지 못할 것이 없고, 흔들림은 성장의 증거다. 도(道)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게 답했었다.

‘도상무명’과 파롤(parole)의 즉흥 미학

‘도상무명’과 파롤(parole)의 즉흥 미학 탱크의 예술은 노자의 ‘도상무명(道常無名)’처럼 이름 붙일 수 없는 흐름이다. 스프레이로 뿜어나며 그아가는 그의 선과 색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즉발적 파롤

(parole)’의 시각화다. 캔버스 위의 문자는 언어처럼 보이지만, 결코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변화와 생성하는 현장에서 즉발하는 리듬의 세계다.

2019년 상하이 현대미술관(MOCA Shanghai)은 〈포스트 컨템포러리-도심 그래피크 7019〉展에서 Vhils, Shepard Fairey(Obey), JonOne, Zevs, L'Atlas 등과 함께 탱크를, 세계 그래피티 8인의 ‘슈퍼스타’ 중 한 명으로 초청했다. 그렇게 거리의 낙서가 미술관의 벽으로 들어온 그 순간, 그와 동료들의 전위적인 행위들은 거리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래피티는 파괴가 아니라, 예술을 세상에 남기는 행위”라고 탱크는 말한다.

탱크에게 스프레이와 붓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기록하는 언어다. 그가 캔버스를 향해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 행위는 ‘쓰기이자 살아 있음의 선언’이 된다. 그의 작업은 일종의 ‘리듬 회화(Rhythmic Painting)’이다. 그는 스프레이를 통해 도시의 박동, 언어의 파편, 인간의 감정을 한꺼번에 분사시킨다. 그의 작품에는 ‘행위’와 ‘자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서예의 현장성과 풀룩의 액션 페인팅이 공존하는 그의 화면은,

‘동양의 기운생동과 서양의 즉흥성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탱크의 리듬은 오늘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그에게 예술은 끝이 아니라, ‘끝없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의 문자는 해독 불가능하지만, 그 속의 리듬은 모든 아이에게 전이된다. 그의 작품 앞에서 감상자는 각자의 언어로 읽고, 각자의 리듬으로 호흡한다. 그렇게 탱크의 예술은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흐르게 두는 것이다.

..... 작가는 변화와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성하는 예술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의 리듬, 바다의 파도, 바람의 흐름 속에서 부산의 예술도 언제나 새롭게 ‘되어가야(becoming)’ 합니다. 그대의 예술이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늘 새롭게 생성되는 리듬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창작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BIVAF

비디오 아트 부산, 의식과 사회를 비추는 스크린의 미학

속에서 경계는 흐려지며, 인간 신체의 감각은 결국 산업의 일부로 흡수된다.

이미지의 경계를 넘어,
동시대의 감각으로 읽는
시대적 담론과 예술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BIVAF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공간 힘이 협력한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은 9월 2일부터 26일까지 공간 힘에서 열렸다.

2004년 영상예술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시작된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BIVAF는 1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독립적 영상 예술의 흐름을 이끌어왔다. 지난 2007년까지 대안공간 반디가 개최하였고 이후 독립적인 단체로 출범하여 2014년까지 개최되었다.

2년의 공백 이후, 2017년부터 영상 예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회화별 큐레이터의 주제 연구를 통해 동시대의 사회·정치적인 풍경을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하는 작가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공모 선정작>을 통해 실험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주제 기획전>과 <주제 릴레이> 전시를 통해 큐레이터의 주제 연구와 비디오 매체 연구를 결합해 작품에 관해 보다 심화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상영작 공모는 총 630편이



'2025 선정작-비디오아트부산 수상작' 현장사진 (전영현, 강철 인간 제조 공정, 2025, 단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6분 20초)



'2025 선정작-한국경쟁4 수상작' 현장사진 (최민경x잇생산, 영원한 젊음을 위한 매뉴얼, 2024, 2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50분)

출품되었다. 1차 심사에는 독립 큐레이터 조울과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집행위원 강주영, 김효영, 서평주가 참여하여 '비디오아트부산' 부문 선정작과 한국경쟁 및 국제경쟁 부문의 최종 심사 대상작을 가려내었다.

최종심사에는 독립큐레이터 박지영, 영화 연구자 이민호, 그리고 집행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국제경쟁과 한국경쟁을 합쳐 총 열 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풍경을 통해 역사적 재구성 과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중국 출신 작가 장한원의 <불명한 풍경>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탈북민 주현건의 실화를 토대로 동아시아 근현대 지정학적 경계를 탐구하며, 풍경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장한원의 리서치 기반 영상 작업은

'망명, 식민 유산, 국경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가 맞닿는 경계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은 <2025 선정작>과 <주제 릴레이> 스크리닝을 포함해 강연, 아티스트 토크, 큐레이터 토크 등 다채로운 연계프로그램을 열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선정작>은 '국제경쟁', '한국경쟁', '비디오아트부산' 부문으로 세분화해, 비디오 매체의 예술적 실험성과 지역 창작의 균형을 함께 도모했다.

'국제경쟁' 부문 선정 작가는 그레

고르 보지치(노발고리차), 해리스 홀x라이판x맷 스피스바(멜버른, 타이베이), 샘 윌리엄스(런던), 시라신 팡쁘라트르툼(차양마이), 테클라 아슬라니 슈빌리(베를린, 트빌리시, 빈)이며, '한국경쟁' 부문은 김윤서, 윤은경, 정우찬, 최민경x잇생산, '비디오아트부산' 부문에서는 이성욱, 전영현 작가가 선정되었다.

<주제 릴레이> 참여 작가로는 미구엘 로렌조 페달타, 베티 애플, 솜수파파라냐, 왕 원섬 두말라간이며, <주제 릴레이> 게스트 큐레이터로는 리 오캄포, 보라프랏 카라난트, 조혜수가 있다.

[비디오아트부산] 부문 선정된 이성욱은 이번 전시작 <물질형태>(2024)에서 '보이지 않음'으로 직조되는 세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집약된 작품이다. 한 인물의 내면적 여정을 따라가며,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가 맞닿는 미묘한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한편, 전영현은 3D 애니메이션을 매체로 경기도와 울산, 그리고 대구에 이르는 거주지의 사회적 분위기와 산업적 환경을 반영했다. 그는 지역성과 시대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영상미학을 구축했다. 전시작 <강철 인간 제조 조정>(2025)은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계적 리듬으로 재현한다. 금속의 날카로운 질감, 반복되는 기계음

<주제 릴레이>는 '뫼비우스의 이미지: 과거와 현재 사이'라는 주제로, 이미지가 시간의 경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게스트 큐레이터로는 조혜수(도쿄), 리 오캄포(마닐라), 보라프랏 카라난트(타이베이)가 참여했다. 이들은 베티 애플(타이베이), 미구엘 로렌조 페달타(케손시티), 솜수파파라냐(차양마이), 왕 원섬 두말라간(홍콩) 등 초청 작가들과 함께 기억·권력·망각·매체를 매개로한 작품을 선보였다.

<주제 릴레이> 게스트 큐레이터 조혜수(도쿄)는 베티 애플의 '인어' 3부작을 통해 비인간적·여성적 존재를 매개로 미래를 사유하는 수행적 예술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리 오캄포(마닐라)는 미구엘 로렌조 페달타의 <사본보관 必>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철도 역사를 비교하며 민주주의의 궤적을 성찰하였다.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은 기억과 이미지, 과거와 현재, 지역과 세계의 경계를 비디오 매체로 잇는 자리였다. 공간 힘과 부산문화재단의 협력 아래, 이번 페스티벌은 예술이 사회와 공명하며 동시대의 감각을 새롭게 해석하는 '비디오 예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비디오 아트는 사회를 비추는 렌즈로써, 이미지의 경계를 넘어 사회 속 언어를 탐색하는 힘이자 부산 예술의 내일을 비추고 있다.

부산, 아시아 예술 교류의 길을 열다



중국 하이난성 베이강다오 마을에서 진행된 '고래 생태 예술프로젝트' 기념사진(아트팩토리비 제공).

부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25년도 레지던시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해외 활동에 돌입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예술 네트워크가 한층 확장되고 있다.

올해 부산 작가 및 단체 10팀이 영국·독일·일본·중국·라오스 등 하반기부터 해외 각지로 파견되며, 부산의 예술이 지역을 넘어 국제 현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트팩토리비와 아시아예술협회는 이번 사업을 대표하는 해외 교류사례로 주목받았다.

베이강다오 고래 생태예술 프로젝트

아트팩토리비는 작년 가고시마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변이 풍부한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2025 라오스 국립미술원 및 파시캄학교 문화교류 레지던시 '아시아 문을 열다'를 진행한 아시아예술협회 기념사진(아시아예술협회 제공)

베이강다오마을에서 <베이강다오 고래 생태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다 생태와 공동체 기억을 예술로 되살리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또한, 한국 부산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중국 현지 주민, 하이난대학교, 하이난 청년예술가협회, 환경 NGO단체 등과 손을 맞잡았다.

기획 프로그램은 크게 네 점의 조형물 설치와 벽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폐선을 재활용한 고래 조형물', 바다와 미래 세대를 잇는 희망을 표현한 '스테인리스 스틸 고래 조형물', 산수화를 배경으로 그려진 고래를 통해 생태계의 부활과 생명의 이미지를 상징

화한 '대형 고래 벽화',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마을 기념품 굿즈 제작'까지 예술이 남긴 흔적은 지역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참여 작가 및 기획자로는 전영섭(금속공예·커뮤니티 아트), 문병탁(설치미술), 서동원(조각), 이경(조각), 정문식(공공미술), 김도형(조각), 박은생(조각), 이명희(기획)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렸다.

이를 통해 양국의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환경보존, 공동체 활성화, 문화교류라는 세 가지 축 위에 미래지향적 예술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라오스 국립 미술원 & 파시캄학교 문화 교류 프로젝트

아시아예술협회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2025 라오스 국립 미술원 및 파시캄학교 문화교류 프로젝트-〈아시아 문을 열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라오스 예술가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시, 교육, 세미나 등 다층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특히, 협력전시는 비엔티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라오스 미술가 협회'의 상설 작품 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투명한 레진 볼과 열대 식물의 잎사귀를 천정에 매단 작업으로

5m이내 가변설치 형태의 김유희 작가의 현대작품부터, 현지 라오스 작가의 도움으로 건물 공사장용 비계를 임대해 설치한 이재희 작가의 <자아 보존이 가능한 작품의 형태>, 파시캄 학교 작품 공동제작으로 모든 작가가 함께 제작한 라오스 민속 벽화와 안재국 작가 디자인 대나무 조형물 등이 포함됐다.

참여 작가와 기획자는 박태홍(목공예), 이상수(기획), 안재국(설치), 박민경(공예), 김태성(회화), 강민기(설치), 김서우(공연), 이재희(설치), 김유희(회화)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었다. 프로그램은 벽화 공동제작, 라오스 작가 및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업교육프로그램, 현지 예술대학 워크숍, 양국의 현대미술 세미나,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라오스 예술가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경험을 나누며, 예술의 매개로 한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실현했다.

이번 해외 교류 프로젝트들은 세계 미술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문화를 전파하고 부산미술인들의 창작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한층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미술계는 이러한 국제 교류의 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예술을 통한 이해와 성장의 가능성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칼럼



임호건
해조음미술관 관장

부산에서 자가대교를 타고 거제도에 들어 서자마자, 관포IC에서 칠천도 방향으로 10 여분 차를 타면, 바다를 마주한 언덕 위에 알록달록 색깔을 입힌 아담한 3층 신축 건물에 닿는다. 올해 8월에 새롭게 개관한 “해조음미술관”이다. 부산/경남 근현대미술의 숨결을 모으고, 지역 미술의 뿌리를 오늘로 잇기 위해 세워진 기억의 미술관이다.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오랜 시간 수집가로서, 부산과 경남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근현대 미술의 변화를 지켜보아 왔다.

서울 중심의 미술 흐름 속에서 지역작가들의 걸작이 종종 잊히거나 흩어지는 현실이 늘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들은 한국 미술사에서 결코 주변이 아니었고, 오히려 뚜렷한 지역성과 예술적 개성을 지닌 중심이었던 것 안에 말이다. 그렇기에 그 동안 모아 온 많은 작품들을 부산에서 가까운 이곳 거제라는 장소에서 다시 빛을 보게 하고 싶었다.

부산/경남 근현대미술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해조음미술관 소장품 중 다수는 부산/경남 근현대미술의 역사적 기록이라 볼 수 있다. 1940년대부터 “춘광회”와 “경남미술연구

회”를 거쳐, 1950년대 전쟁 중 결성된 “토벽동인”과 또 그 후의 “청백” 등 다양한 지역미술운동을 거쳐온 작가들의 작품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의 예술은 근대화의 풍랑 속에서도 자신만의 미학을 지켜내고, 바다와 산, 그리고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국미술의 한 축을 세웠다.

서울 중심의 미술사 속에서 부산/경남의 작가들은 종종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지만, 이들의 작품은 시대의 감성과 지역의 정신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낸 기록들이었다. 따라서, 단지 작품을 전시하는 곳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미술사 복원의 장’으로써 마중물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해조음미술관을 짓게 되었다.

이곳 거제는 바다를 통해 부산, 통영, 진주, 마산, 그리고 남해로 이어지는 남해문화권의 중심축이다. 자연스럽게 해조음미술관이 지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예술의 흐름을 잇는 남해권 미술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무려 2천3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해마다 거제도를 방문한다. 이들에게 우리 부산/경남 미술의 원천과 뿌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수집에서 공유로

나는 개인적 수집이 끝이 아니라 공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모은 작품들을 개인의 벽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미술관 설립의 가장 큰 동기였다. 바다를 바라보는 미술관의 전시장은 그

거제에서 다시, 부산·경남 미술의 시간을 열다

〈나는 부산미술컬렉터입니다〉



목동_ 48 x 65cm, 판넬 위 오일, 1953_양달석
임호건 작품소장.



소와 여인_ 52 x 65cm, 캔버스 유채, 1978_송
해수(임호건 작품소장).



진동앞바다_ 53 x 45cm, 캔버스에 유채, 1976_
김종색(임호건 작품소장).

자체로 작품이자 메시자이다.
“해조음”은 바다의 소리이자 자연과 예술

의 울림을 의미한다. 파도가 밀려오고 물러가듯, 예술도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되돌아보고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곳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관람객에게 목격할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역 미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술관은 단순한 감상의 공간이 아닌 ‘지역문화의 아카이브이자 예술적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해조음미술관은 상설전의 본관과 분리해서, 특별관을 추가로 준비했다. 기획전, 특별전, 초대전, 콜라보 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 특별관에서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차를 편안히 드실 수 있는 공간도 한쪽에 준비했다.

지역이 곧 세계다

해조음미술관이 추구하는 철학은 단순하다. “지역이 곧 세계다” 부산/경남의 미술은 결코 지방의 미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 근대의 혼란, 전쟁의 상흔, 그리고 예술가의 인간적 고뇌가 모두 담겨 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는 보편의 언어이자, 동시에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목소리이다.

이 곳 해조음미술관이 앞으로 한국 근대 미술의 중요한 기록자의 하나이자, 부산/경남 미술의 정통을 계승하는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하길 바란다.

바다의 파도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예술의 소리로 거제에서부터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본다.

Close U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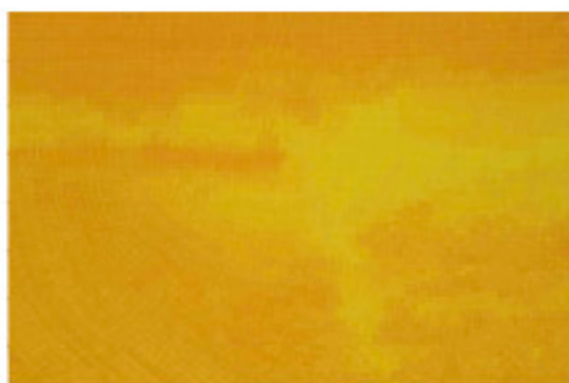
인식의 층위를 사유하는 시각 실험



청년작가 장유재

장유재 작가의 작업은 실재와 실제 사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시각적 경험을 매개로 관객에게 ‘경’이라는 개념을 다시 묻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적 요소와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초기 작업에서 그는 자연 풍경을 몽개어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적 정보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조명했다. 화미하게만 남은 풍경의 형체는 관객에게 불편함을 유도하며,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노란 산수_ 116.7 x 91.0cm, 정지채색, 2019.

이후 그는 수학적 도표를 활용한 평면 작업과 빛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거나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설치작업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적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했다. 빛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이며,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실재와 실제의 경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또한, 작가의 작업은 일상 속에서 보이는 현상에 대한 미시적 관점으로 공간을 분해, 해체하며 살펴보

는 작업으로서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구조화하고 이것을 다시 귀납적 방식으로 현상을 재현한다. 시각적 손상에서 오는 불편함과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두려움, 공포)로 방어적 기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증반 작업과정에서는 본인이 가진 트라우마를 공유하기 위한 표출 방법으로 이차적 방어기제가 아닌 표출과 승화의 방식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불편함의 풍경〉, 〈일상의 초점〉, 〈시간축의 공간〉, 〈실재의 오염〉 시리즈까지 부주



불편한 풍경 시리즈-검은 산수 불편한 풍경 시리즈-검은 산수_ 162.3 x 130.3cm, 수묵산수, 2019.

제인 차원의 단면을 통해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최근 부산미술협회에서 주최한 청년작가전에서 선보인 ‘명화 시리즈’는 작가의 기존 작업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과 그 본질에 대한 정의를 질문한다.

작가는 ‘나라’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그 원자적 구성요소를 국민과 역사로 간주했다. 그는 이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정의를 ‘이

름’이라고 보았다. 이름은 단 한 사람의 고유한 정의이자, 각각의 소서사를 담은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대중적인 예술 형식인 민화와 시화를 차용해, 살아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현재를 표현한 재해석의 시도다.

이처럼 장유재 작가는 자신의 감수성을 조형적 세계관으로 확장시키며 빛, 공간, 인식의 경계를 탐구하며 사유한다. 그는 실재와 실제 사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본질을 해체하고, 그 경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 개인전
-2025 실재와 실제 사이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부산, BFC)
-2022 편집된 감각(부산, 홍익미술촌·시화구형동)
- 단체전
-2025 제13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대부산, 금련산갤러리, 부산미술협회
-2024 허쳐모예전세계미술집단, 태국, 방콕, 허쳐모예동
- 프로젝트
-2025 동래구혁신마을립센터전시 기획 연출 등
- 아트페어
-2023 UNDER39 아트페어(부산)

부산의 풍경과 정서 담아낸 팔순의 여정

10월12일~19일, 부산시청 전시실



한국화가 허휘

197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0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허휘 작가의 '부산의 정수, 팔순의 여정' 전시가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청 2·3전시실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팔순을 맞이하여 부산의 풍경과 정서를 화폭에 담아낸 작품 70여점 중 50여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 100경'을 중심으로 100호~300호 등 대형 작품을 비롯해, 800호 크기의 판넬화, 세장 30cm의 중선에 담은 선면화, 도판 8호 크기의 초벌 도자판 위에 그린 도자화, 그리고 부산의 인물을 그린 화첩화 3편과 백준도 및 12조 화조 병풍화 등 다양한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대표작품 <금생과 동해일출>의 경우, 작품의 배경이 되는 금정산은 허 작가에게 부산의



금생과 동해 일출_230x162cm, 한지, 먹, 채색, 2018.

역사와 정신이 시작되는 산이며, 부산의 옛 지명인 '동래'의 뿌리 또한 이 산에서 비롯된다. 그에게 모든 흐름의 근원에는 첫머리가 있듯이, 그것이 단단할 때 비로소 다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시작'과 '작가의 예술의 뿌리'를 함께 담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허 작가는 "예술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사람, 그리고 그 속의 이야기에서 피어난다고 믿는다"며, "이번 전시가 그 믿음을 담은 진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입고출신으로 여는 기호화 상징의 세계

9월19일~10월 11일, 갤러리 아트썬



서양화가 정광화

초서와 불상의 이미지로 기호와 상징의 절대성을 확장하며, 생노병사와 희노애락, 우주의 연기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서양화 정광화 작가 기획전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운대 달맞이길 갤러리 아트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아트썬의 119번째 기획전으로, 고전으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을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형하며 고전과 현대 사이의 긴장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정 작가의 작품을 조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는 10호부터 100호까지 입고출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문인화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조형 언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총 2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문자와 불상 이미지, 초서와 상형문자 등은 그의 작품 속에서 사공을 초월한 새



逍遙遊_50호F, 아크릴 및 혼합재료, 2024.

로운 형상으로 변주된다. 그는 "세상에 숨겨진 기호와 상징의 비밀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인간과 자연, 문화와 역사의 본질을 담아내는 회화를 지향한다.

이처럼 정 작가는 "회화는 결국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며 "한문 초서의 율동성과 불상의 절대적 형상을 통해 인류 문화의 궤적과 종교적 초월, 그리고 인간 활동의 흔적을 사공을 넘는 세계로 드러내고 싶다"고 전했다.

붓 끝에 깃든 호랑이의 기상

9월15일~21일, 예술촌 갤러리2



한국화가 김홍식

선과 농묵의 퍼짐, 배움과 채움 속에서 먹빛의 세계를 묵향으로 음미하며 한국화의 절이온 김홍식 작가의 개인전이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예술촌 갤러리2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본질과 철학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하고 해체되는 변화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품의 깊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로 호랑이 25점, 폭염 6점, 4계 풍경 4점으로 구성했다.

자연의 숭고함과 부드러운 내재된 한국적인 따뜻한 정감과 미감의 미학을 드러내는 김 작가는 2024년 1월, 이번 전시의 작업소재를 찾기 위해 경북 예천에 갔던 그는 산과 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눈이 하얗게 덮인 풍경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

이처럼 이번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



사선공유(호화)_80x160cm, 한지에 수묵채색, 1988.

화 작품 또한, 자연 속 막이 사슴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절대강자의 용맹과 품위를 생각하며, 수도승이 조용히 명상하고 수행하듯 내적 고통을 감내하며 세필의 움직임이 그려내며 비로소 위엄이 넘치는 산중호걸의 모습을 창작해낸 것이다.

김 작가는 "시작할 때는 영혼을 담아 뚜렷한 변신을 추구하느라 붓질 연구도 하였고, 농부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맘을 쏟았다. 지금의 붓질은 시간이 갈수록 노화되어 움츠러들고 경직된다. 산만해져 있는 나의 의식 속에 참뜻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라고 전시소감을 전했다.

수묵, 일상의 봉투 위에 피어나다

9월20일~30일, 이비나인 갤러리



한국화가 김현철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자리한 이비나인 갤러리에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화가 김현철작가의 기획전 '수묵 STORY'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통 수묵화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감각과 일상의 소재를 결합한 실험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료 실험이라는 두 축에서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신작들은 비행기내 좌석 포켓 속에 있는 'Cleanliness Bag' 즉 구토봉투를 화폭으로 삼았다. 전통적인 화선지 대신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물성을 지닌 봉투 위에 먹을 올려 수묵의 세계를 펼친 것이다. 나아가 한지조각을 반입체적으로 풀리주하여 구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요소인 먹·여백·생각을 낫선 표면위에 새롭게

조율해냈다. 이처럼 김 작가는 긴 점, 중간점, 짧은 점, 갈필점 등 다양한 붓 터치로 농묵의 농담을 표현하며, 그 속에서 옛 것과 현대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수묵화의 대중화와 침체된 부산 한국화의 유효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너림의 미학과 여백의 철학을 현대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며, 오늘의 수묵이 가질 수 있는 사유와 솔직함을 제시했다.



수묵 STORY_12.8x26cm, 종이봉투에 먹, 2025.

존재의 흔적, 그리고 실존의 확인

9월13일~30일, 소비지갤러리



서양화가 윤성욱

부산에서 활동하는 윤성욱 작가는 존재의 근원적 질문을 탐구한다. 이미지와 기억, 잔상과 몽환의 경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그 흔적을 남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개인전이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소비지 갤러리에서 열렸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말로 다 풀이될 수 없는 어떤 것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려하는 의지를 담은 작품 총 15점을 선보였다. 이러한 전시주제를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내면이 언어 이전의 차원에서 어떻게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즉, 보이지 않음과 드러남, 소멸과 발생이라는 양극의 긴장관계가 작업의 철학적 토대로



블루룸_90.9.x.72.7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혼합재료, 알루미늄, 2024.

특히 작품 <Blue room>은 '자기만의 방'이라는 은유를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와 동시에 보편적 존재의 상태를 사유케 했다. 파란색이라는 색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내면의 무게, 침잠, 그리고 존재의 심연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예술은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번 전시 역시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전시소감을 전했다.

유년의 빛, 꿈의 정원

10월7일~12일, 금련산갤러리



서양화가 강혜경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으로 회화적 기법을 통해 독특한 소녀 캐릭터를 탄생시킨 강혜경 작가의 개인전이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꿈꾸는 정원을 주제로 하여, 화폭 속 소녀는 행복한 꿈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한 결실이 풍성하게 꽃처럼 피어났다. 작품 속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 이야기를 담아 하나의 액자식 구성으로 펼쳐졌다.

대표작품 중 하나인 <빛나는 정원>은 해바라기가 만발하게 피던 계절, 기다림과 만남에 대해 사랑을 화상하는 소녀를 그려냈다. 별빛이 내리는 밤하늘 아래 자연이 보답하듯 어두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캐릭터는 화려한 빛의 에너지와 축복아래 결실을 맺는다.



나는 유령이다_91x91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또다른 작품 <유령이 나타났다!>는 방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유령놀이를 하는 강 작가의 자녀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된 작업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투영시키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를 통해 재미있는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폭넓은 시각으로 풀어낸 강 작가는 "최근 작업은 가족과 관련하여 일상적 공간에서 오는 그녀의 행복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도 직접 수작업 하며 개성적인 독특한 기법을 계속 새롭게 연구하며 발전해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5 제5회 북구미술축전

9월19일~10월2일, 북구문화예술회관

2025 제5회 북구미술축전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을 집약해 보여주며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정기전은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문인화, 서각의 다섯 분야에서 총 70여 점을 선보였다.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공간에서 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져 예술적 감흥을 더했으며, 관람객들은 일상의 공간 속에서 북구 미술인들의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통해 색다른 예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북구미술협회는 2021년 11월 송대호 회장을 중심으로 52명의 회원이 참여해 '북구미술축전'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재창단하여 활력을 얻으며, 화명신도시 형성과 함께 북구에 자리 잡은 지역미술인들의 주된 활동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



제5회 부산북구미술축전 도록 및 오픈식 사진.

부산독립미술가협회 기획전시 열려

10월10일~11월 14일 영도, 중구, 동구 릴레이 전시

2008년 행복한 나들이전을 계기로 결성된 부산독립미술가협회는 미술대학·예술고등학교·중등 미술교과 교사 사들로 교육 현장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출발한 미술단체이다.

이번 전시는 10월 10일~17일 영도문화예술회관, 10월 19일~31일 아바나인갤러리, 11월 1일~14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이어진다. 주제는 '부산을 돌아보다-Art Busan Tour Project'로, 부산 영도·중구·동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사회의 역사·문화·환경적 맥락을 담았다. 총 35명의 작가가 지역의 장소성, 개인적 서사, 시대적 흔적을 예술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예술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또 한 이번 전시가 사회적 참여라는 취지로서 관심을 모으고 담론을 확장해 지역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5 독립미술가협회 기획전시 포스터 및 대표작품 사진.

제34회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11월 3일~14일, 백양홀갤러리

부산진구청에서 개최하고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4회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술, 사진 분야 전 장르 80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식전공연으로 무용분과에서 기념무용회를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은 1992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지역 예술인의 독창성과 감성이 담긴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34년간 이어져 왔다. 그동안 전시는 예술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으로, 시민들에게 예술의 감동과 작가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부산진구청의 지원과 관심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세계를 한눈에 조망하고, 예술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제34회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 전시포스터.



2025 현대한국화지킴이전 대표작품 사진.

11월11일~16일, 금련산갤러리

제9회 현대한국화지킴이 정기전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작품 40여점과 더불어 비회원 작가 15점이 함께 선보인다. 이 전시는 한국화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폭넓은 교류와 개방적인 전시 성격을 가지고 구상과 바구상, 수묵과 채색 등 다양한 매체와 표현양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화가 지닌 깊은 전통적 뿌리와 더불어, 동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작가들의 고민과 실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현대한국화지킴이전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화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전을 계기로 활동범위를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며,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의 미협회원들과 함께하는 교류전을 통해 한국화의 외연을 넓혀갈 예정이다.

제54회 청색회 정기전

9월30일~10월 5일, 금련산갤러리

1993년 창립한 이래, 올해로 54화째를 맞이한 청색회의 정기전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작가 총 27명이 참여해 각자의 예술 세계를 펼쳤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최근 평면작품과 함께, 각자의 초기작 또는 대표 소품을 선보이며 청색회가 걸어온 창작의 여정을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30여년의 시간을 거치며 쌓인 작가들의 개성과 깊이, 그리고 세대 간 예술적 대화가 어우러진 현장은 부산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청색회가 지켜온 창작의 열정과 미학적 실험정신을 일깨우게 했다.

참여 작가로는 강명숙, 권순마, 김보경, 김복일, 김윤선, 김자송, 김지원, 문계주, 박선민, 박성만, 백대진, 백혜주, 손종민, 양수미, 오경택, 이경미, 이동근, 이마근, 이마순, 이윤화, 이해경, 전수훈, 정보정, 정유리, 정효주, 허석, 황보후 작가가 있다.



2025 제54회 청색회 정기전 전시관 플랫폼 및 전시장 사진.

웅천 국제 아트 페스타 아홉산 숲 미술 축제

10월24일~11월2일, 기장 아홉산 숲 일대

부산의 현대미술 단체 '투데이 아티스트'가 주최하고 주관하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서 개최하는 '2025 웅천 국제 아트페스타 아홉산 숲 미술축제'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 아트페스타는 예술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미술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미술관'을 표방한다. 투데이 아티스트 회원 및 국내외 초청작가 50여 명의 회화, 입체, 설치 등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현대미술전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미술관으로 탈바꿈해 전시하고, 체험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의 참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화전,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문화 향유의 장을 제시한다.



2025 웅천 국제 아트페스타 팸플릿 표지 사진.

토백회, 창립 50주년 기념전 개최

11월4일~9일, 금련산갤러리

1976년 창립하여 부산 미술의 한 축을 지켜온 토백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금련산 갤러리에서 특별 기념전을 개최한다. '삶과 자연, 토백회를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토백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 활동 중인 회원 작가들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기념전은 창립 회장을 비롯해 초대 원로작가와 작고하신 선배 작가들의 귀중한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과거의 기록이자 부산 미술사의 중요한 흔적이 된 작품들과 현재 왕성히 활동하는 회원들의 신작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구상 계열의 작업을 하는 미술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서양화, 한국화 등 구상 계열의 작품들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성찰하며,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본질적인 힘을 다시금 일깨울 예정이다.



제50회 토백회 정기전 전시도록 및 대표작품 사진.

제9회 현대한국화지킴이전 개최

11월11일~16일, 금련산갤러리

제9회 현대한국화지킴이 정기전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작품 40여점과 더불어 비회원 작가 15점이 함께 선보인다. 이 전시는 한국화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폭넓은 교류와 개방적인 전시 성격을 가지고 구상과 바구상, 수묵과 채색 등 다양한 매체와 표현양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화가 지닌 깊은 전통적 뿌리와 더불어, 동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작가들의 고민과 실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현대한국화지킴이전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화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전을 계기로 활동범위를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며,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의 미협회원들과 함께하는 교류전을 통해 한국화의 외연을 넓혀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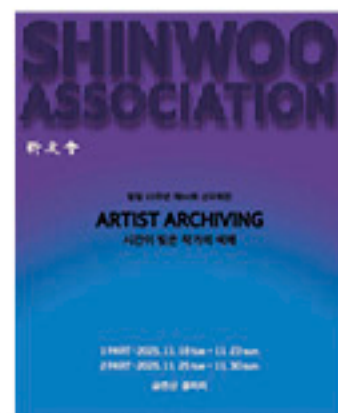
제64회 신우회 정기전 개최

11월 18일~30일, 금련산갤러리

올해로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신우회의 정기전 'ARTIST ARCHIVING' -시간이 빛은 작가의 색채를 주제로, 오는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광복회관에서 열린 소품기획전 'TIMELESS-시간여행전'의 연장선으로 한 주당 17명씩 1부, 2부로 각각 나누어 총 34명의 신우회원들의 아카이빙전시 형태로 참여한다.

특히 한 작가 당 10점의 작품과 함께 5~7분 분량의 아카이빙 영상을 만들어 함께 선보여, 개인의 창작 궤적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역 작가들의 활동을 사료적으로 남김과 동시에 작가 개인의 예술 여정을 조망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성찰하여 앞으로 작가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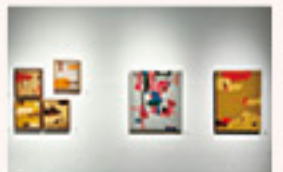
2025 제64회 신우회 정기전 포스터.

최석봉 초대 개인전 '시간과 공간'
9.1-9.30 갤러리 림해

부산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먹으로 도시의 얼굴을 그려온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전쟁 이후 항구 도시 부산에 남은 삶의 여백과 한 주택의 흔적을 짙은 먹의 번짐으로 담아낸 한국화 작품들을 선보였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대체된 도시 풍경 속에서 어전혀 남아 있는 낡은 주택의 형상을 통해 지워진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대가제로 작동한다. 번지는 먹빛은 기억의 안개처럼 관람자의 시선을 감싸며, 잊히는 순간을 붙잡아 기억을 더듬게 만든다.

제31회 수영구미술대전
9.15-9.20 바다갤러리

이번 전시에는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수영구 문화예술회 회원 작가들의 개성 있고, 감각적인 다양한 작품 26점을 전시했다. 전시 오픈식에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과 원로작가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참여작가로는 고미숙, 구경미, 김선희, 김용기, 김진수, 노상철, 문경미, 박선길, 박옥남, 박경원, 송미나, 안성자, 안영연, 양홍근, 어흥부, 위영욱, 이강준, 이상술, 이세희, 이선애, 이순이, 이정호, 임창석, 장인정, 최현수, 한혜경 작가 등이 있다.

신미라 개인전
9.23-10.19 M543

부산에서 오랫동안 누드드로잉 작업을 이어온 신 작가는 '정지된 기억'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관람객을 만났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오브제를 지르고 찾아 붙이는 행위를 통해 완성한 크고 작은 평면 작품 속 그의 예술세계를 다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작가는 삶 속에 존재하거나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공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시간의 변화에 변화함에 따라 저장된 이미지를 정형화 되지 않는 형태로 선과 면의 중첩시켜 표현한 색의 변형을 통해 화면을 재구성했다.

'공유된 풍경'
9.29-10.10 부평아트스페이스

웅두산 공원 미술의 거리 운영 정, 안수진, 이규열, 서미은, 이수아 입주작가와 부평아트스페이스 유경, 이혜리 입주작가 7인의 아트마켓 '공유된 풍경'이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아트마켓은 생명과 감정, 파도와 시간, 시선과 운기, 점과 선처럼 떠다니는 생각, 희망, 빛의 경계 각각의 서로 다른 예술적 배경과 풍경을 공유하며 평면작품 18점과 입체작품 5점을 선보였다.

2025 제14회 글로벌 한·일 중진 작가 교류 협회전
10.13-10.17 연제 복합 문화센터 '솔갤러리'

이번 전시는 2011년 창립 이래 꾸준한 한·일 양국 간 국제 예술 교류를 이어온 단체의 대표적 행사로, 일본 구주 지역과 사가시의 중진작가 9명과 국내작가 32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초청가에는 KBS 부산 방송총국 갤러리에서 10여 년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시장을 한 장소로 옮겨 교류의 창을 지속해왔다. 약 80평 규모의 전시장에는 일본작가와 국내 작가들의 평면, 입체작품 40여점이 어우러져 양국 작가들의 미학적 대화를 형성했다.

부산고등법원초대전 '한기능 조각, 회화를 품다'
10.13-11.4 부산고등법원 열린문화공간

한기능 작가는 고국의 자연과 지중해의 빛, 그리고 불교적 사유가 교차하는 독특한 미학적 풍경을 회화 56점과 조각 16점을 통해 선보였다. 2001년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미술미술관 회화초대전 이후 24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는, 작가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어떻게 조형세계를 확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며 동서양의 미학과 자연의 정취를 잇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그의 창작여정을 응축한 자리였다.

골림, 그 시간
9.2-9.6 금련신갤러리

서로 다른 시선과 화법을 지닌 여류작가 4인이 모여, 색과 선의 흐름 속에 내면의 사유와 일상의 흔적을 담아냈다. 박경희 작가는 골목 풍경을 반복 탐구하며, 외부에서 내면으로 깊어지는 층위를 드러냈고, 선우 이 작가는 치유와 창작의 힘으로 제2의 삶을 화폭에 담았다. 이경순 작가는 자연 속 물길을 자유로운 조형언어로 펼쳐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내면의 파동을 그렸다. 정지연 작가는 평범한 일상을 회화적 현상으로 재구성하며 숨은 이야기를 드러냈다.

최우인 개인전 '공후도가-어둠 위에 파다'
9.15-9.20 부평아트스페이스

각자의 내면에 깃든 고요와 빛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검은 화면 위에 띄어난 연꽃은 작가가 탐구해온 세계를 함축한다. 작가는 연꽃을 생명과 사유의 은유로 제시하며, 이것은 공허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상징이자 고요 속에 깃든 빛이다. 어둠을 가득 채운 검은 바탕은 침묵과 내면의 공간을 드러내고, 그 위에 떠오른 연꽃은 하나이면서 전체인 존재로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관람객은 화면 속 연꽃을 응시하며, 곧 자기만의 연꽃을 마주하게 된다.

'연결의 망막'
9.23-10.23 레오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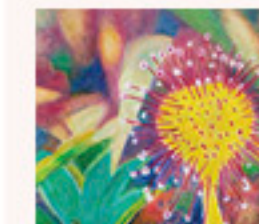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인간의 관계망을 작업의 중심으로 삼아 상처와 단절,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작품들을 도구삼아 머신드로잉으로 표현해내는 조현서 작가와 수많은 점을 쌓아올려 인간의 욕망, 기억, 통상을 시각화하는 권영술 작가가 만났다. 두 작가의 작품들이 '연결이라는 주제 아래 공명하며, 인간 존재와 사회적 관계망을 복잡성을 탐구하는 시각적·철학적 장을 선사했다. 연결의 망은 파면화된 기억과 조각난 감정, 단절된 관계들을 직조하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유기적 구조를 보여주었다.

한장원展
10.10-10.22 광복회관

지난 50년의 작업여정을 '가려진 시간'이자 상처의 시간'으로 표현한 한 작가의 작품은 나무와 나뭇잎, 난과 같은 자연의 흔적들을 통해 그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존재의 순환을 통해 보여주는 철학적 행위는 재료의 생애를 존중하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왔다.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며, 상처와 구원의 서사를 하나의 미학적 언어로 엮어낸 작가의 나무는 인간의 삶처럼 세월의 결을 묻고, 나뭇잎은 빛과 영혼의 상징으로 어둠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의 흔적을 드러냈다.

김순경 개인전
10.13-10.18 부평아트스페이스

김순경 작가는 이번 소품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23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였으며, 모두 인물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작품 속 인물들은 특별한 장치 없이도 보는 이에게 지친 마음을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전한다. 가족이라는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섬세한 유화 기법과 인물표현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김미화 개인전
10.15-10.21 한새갤러리 제2전시실

신비롭고 무한한 우주와 넓은 세상을 자신의 작은 그물에 담아내듯 김미화 작가는 자신의 시선으로 포착한 세계와 우주의 풍경을 캔버스 위에 옮긴 30여점의 평면작품으로 구성했다. '나의 풍경'은 김 작가가 유화를 통해 산수화적 느낌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며, 개인적 사유와 자연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다. 붓끝을 통해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면 위에 실어낸 작가는 그의 작품 속 펼쳐지는 우주적 상상력과 섬세한 풍경의 세계를 마주하며, 내적 풍경을 투영하게 만들었다.

김선희 개인전
9.8-9.16 아젤갤러리

0번 개인전은 작가의 유년 시절의 모호하고 왜곡된 기억의 전상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감각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작가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아 정체성과, 내재적이고 감각적으로 각인된 자아 사이의 경계에 주목한다. 이 경계는 늘 불면과 불안을 내포하지만, 역설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치유와 위로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화폭 속 형상들은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고 흐릿하게 번지며, 기억의 불안정성과 감각의 역동성을 탐구하면서도, 관람자의 감각을 자극한다.

임은지 아홉 번째 개인전 '오직 너의 바다'
9.22-9.28 솔트갤러리

임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자연이라는 본질'에, 감성이라는 물결을 대한 공예작품들을 선보였다. 그에게 자연은 삶의 기억과 치유의 언어이며, 곡선과 색을 통해 감정의 층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 자연의 얼굴을 바다로 표현했다. 그 모든 감정의 진자가 물결로 흔들리며, 자신의 내면과 화폭의 시간을 두려왔던 바다가 치유의 장소로 변해가는 경험을 담아 솔직하게 시각화했다.

장안용 개인전 '당신의 자리'
9.25-10.18 밖_안

부산시 가장군 두동리 333-1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삶과 도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성찰을 선물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밖_안'이라는 공간 개념 속에서 부산의 현재를 기록하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는 떠남과 남음이이라는 모호한 경계 위에서 도시 사람들의 인부를 묻는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일상의 모사지에서 모착한 부산의 모습을 연기와 사람 형상을 활용해 시각화함으로써, 비이기는 도시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재현했다.

김현식·함윤금 도예展
10.21-10.30 리본갤러리 제1·2전시실

목상과 새로운 감각이라는 각기 다른 주제를 탐구한 김현식, 함윤금 작가의 도예 작품들이 같은 갤러리 다른 전시실에서 만났다. 전통과 동시대적 미감이 조화를 이루는 전시를 선보였다. 김 작가는 해안과 길조를 상징하는 물고기, 푸른 미래를 뜻하는 새를 석물, 석판 위에 표현했으며, 함 작가는 점토 고유의 물성과 질감을 살려 인류의 역사를 함께한 말을 표현했다.

김정숙 개인전 '파랑새를 품다'
10.13-10.21 아젤갤러리

네 번째 개인전을 맞이하여, 김 작가는 '파랑새를 품다'를 주제로 한 수채화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오랜 시간 품어온 삶의 사유와 감성을 화폭에 담아냈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며느리'를 동경하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행복은 곁에 머문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투명한 수채화의 질감은 소소한 기쁨이 가진 섬세한 결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그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파랑새'임을 일깨워준다.

2025 제23회 정영전
10.20-10.31 선유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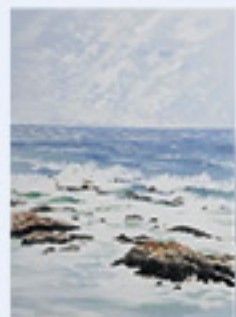
영도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모임 정영회는 1966년 창립 이후 여러 방면의 작품과 영도 구민의 참여로 약 30년 동안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38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영도 미술인 전시'를 주제로 하여, 평정 작품과 입체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문화도시 2025비전에 동참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영도 구민의 문화 향유와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영도 지역구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자긍심을 함양하고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회원님의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마감기한은 발간 전 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기획내용 및 특징,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가노트 A4용지 1장 또는 1/2 분량]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11.5-11.10
부산 연목회
인사동서 만나다



11.12-11.17
문곡 안도영
'유예회사(遊藝史)展'



12.17-12.22
송호준, 박보경, 김도희
'하모니(Harmony)'



9.11-2026.8.30
할프 김슨 'The Black Trilogy'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9.13-2026.2.18
2025 부산현대미술관 시너마
영화 이후
부산현대미술관



9.20-11.30
KICK
카란갤러리



9.30-2026.1.18
2025교류기획전 '지각의 만능-세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화와 예술' / 부산박물관



10.1-11.8
김한나, 키마작 2인전 'The Days'
갤러리올레아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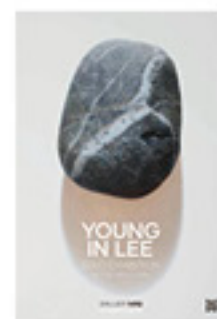
10.15-11.4
송다석 초대개인전 'My story2'
갤러리티



10.17-11.16
'지각의 경계-검은구멍 속 사유'
동일고무텔트 동래공방



10.18-11.9
바사아 개관초대전 이동기 목조형물
VASEA



10.18-11.17
이영인 개인전
갤러리하스



10.26-12.28
비남주 'FADED'
ART SPACE LINK



10.27-11.15
판의 경계-경계의모구
스페이스원지



10.28-11.10
김덕길초대전
피카소화랑



11.1-11.14
부산특별미술가협회 기획전시
Art Busan Tour Project展
부평아트스페이스



11.1-11.16
양석대 초대개인전
송정원갤러리



11.3-11.12
이찬용 개인전 '공간'
아틀라라리



11.4-11.19
제50회 토백회 정기전
금련산갤러리



11.5-11.9
조영려 개인전
해운대문화회관 제1전시실



11.11-11.16
제9회 현대한국화자/미전
금련산갤러리



11.17-11.21
김남영 개인전 'Island in space'
부평아트스페이스



11.18-11.30
제34회 신우회 정기전
금련산갤러리



12.2-12.7
이경옥 개인전 '물들이다'
금련산갤러리



12.8-12.13
김은경 개인전 '백'
부평아트스페이스



12.9-12.14
제4회 사미회 정기전
금련산갤러리



12.15-12.20
수요일만 예술가
부평아트스페이스



12.16-12.21
제41회 동백전
금련산갤러리



12.22-12.27
물, 빛, 채화전
부평아트스페이스

부산미술 동북연호 부산남.400205
·발행인: 최장락
·발행처: 부산미술협회
·편집위원: 김성현 · 김동원 · 정연은 · 진수아
·편집기자: 김은비
·주 소: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24월-12.20토 | 개막식_12.2화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 수상작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장소	분야	기간
부산문화회관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민화불화	2025. 11. 25.(화) ~ 11. 29.(토)
	서양화(구상), 서양화(비구상)	2025. 12. 2.(화) ~ 12. 6.(토)
	서예	2025. 12. 9.(화) ~ 12. 13.(토)
	문인화	2025. 12. 16.(화) ~ 12. 20.(토)
부산시청 2층 전시실	한국화, 수채화	2025. 11. 24.(월) ~ 11. 29.(토)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2025. 12. 1.(월) ~ 12. 6.(토)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2025. 12. 8.(월) ~ 12. 13.(토)

공공기관
의견을 반영함

문화예술로 쌓아온 58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의 보람을 경험합니다
예술의 향연을 만끽합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깊이 전해지
자란 58년처럼, 영원히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Biennale

(이 광고는 생생한 사진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MY BRIGHT FUTURE

DSU Dongseo University

이런교육
이런기회
동서대만
있습니다

동서대, 이런기회는 없습니다!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이름 드려 대학 중 4대, 동서대학교
디자인·영화영상·디지털콘텐츠 분야 국내 최고
세종대 등 세계 3대 디자인 대학 수상 전국 최고
아시아 연합대학 (Asia Alliance University) 주동
아시아 대학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교육
핵심대학 전국1위 (최근 3연속), 정보통신(가전)
일본의 최신 취업교육 + 차별화된 진로지도

동서대, 이런교육 없습니다!

- 60개 글로벌 현장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수업
- 동서대 + 동서대 연합교육 과정
- 미래, 일본, 중국, 한국 글로벌 캠퍼스 운영
- 해외 이직률과 함께하는 자문화 전 세계 수업
- 산업 현장에 있는 '실용형 캠퍼스'에서 배우는 직업교육
- '이론'과 '실용'의 균형을 이루는 기술 직업을 지능교육